

6월 3일 대선...정치권 선거전 본격화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정부, 오늘 공고...정식 후보 등록 내달 11일까지
공식선거운동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당선 즉시 임기 시작...모의 수능 일정도 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대통령선거일은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 결과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합의했으며,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대선일을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대선일정을 추진한 것은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에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과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권이 서둘러 대선일정을 확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점과 대선

준비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등을 고려해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물론 대통령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4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부터 곧바로 시작되었다.

또 대선 후보가 되려면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와 함께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앞서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7일 도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끝이 아닌 전북의 미래 발전 향한 의지를 다짐했다. <사진=전북타임스>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 개헌 일축...“지금, 내란종식이 우선”

대선 전 개헌론 선 그어
“민주주의 회복 급선무”
‘4년 중임제’엔 신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 요구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이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가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된다”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며 대선 후 별도의 개헌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 “518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문제, 또 계엄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개헌에 518 정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개헌에 선을 그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국

민의힘은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1호 당원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시키라”면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면 내란 종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개헌에 앞서 국난극복과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하자는 우의장과 비명계의 주장은 사실상 물거너 간 것으로 보이며, 개헌은 대선 이후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 변화·발전 ‘한 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10인은 7일 도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끝이 아닌 전북의 미래 발전 향한 의지를 다짐했다.

12.3 (윤)尹 계엄령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의지 속에 이뤄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다.

전북자치도 국회의원 ‘이성윤(전주),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춘석(익산갑), 한병도(익산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은 주문! ‘파면’에 대해 “전북 도민과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평가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의원 김윤덕(전주갑), 정동영(전주병), 윤준병(정읍,고창군)은 기자회견문 의견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촛불집회, 천막농성, 출퇴근 파켓 시위, 서명운동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해 준 도의원 시·군의원 당직자들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출했다.

12.3 계엄 발령 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 판결까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흔들리고 사회 경제적 혼란에 빠지는 매우 심각한 위기로 돌변했다.

또 전 세계로부터 민주주의 퇴행국가로 지목,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 등에 따른 국제사회 불명예 나라로 이름이 올려졌다.

무엇보다 (윤)尹 정부 시절 2023 세계젠버리 파행등으로 전북은 국제적 신뢰를 잃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겪었다.

또 새만금 개발사업 지연 등 전북 미래 핵심 사업 정치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전북자치도 국회의원 전원원은 “(윤)尹 파면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전북을 향한 출발점이다”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복원해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앞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도민 삶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다시 민주주의! 전북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온 힘을 쏟아 불졌다”며 “전북 미래를 벗어난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끌자”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은행이 함께하는

전북에듀페이카드

신청기간

4월 1일(화) — 11월 28일(금)

신청방법

비대면신청
대면신청

전북에듀페이 앱, 쓱뱅크에서 신청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1.전북에듀페이 앱 접속
2.전북에듀페이카드 및 바우처 지원비 신청
*카드 및 바우처 지원비까지 신청해야 최종 완료됩니다.

전북에듀페이카드 혜택

도서구입시 2% 캐시백

S-OIL주유소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라티당 50원 캐시백

전주동물원
입장료 1,500원 캐시백

전북도내영화관 5,000원 이상
사용시 3,000원 캐시백

전국모든제과점 사용액
10% 캐시백

바우처 지원비 이용금액의 0.1% 기부를 전북은행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에듀페이 앱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북에듀페이 전담 고객센터 (1588-2255)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063) 239-8045 ~ 8047

※대상 가맹점 및 업종은 KB카드 가맹점 기준에 따릅니다.
※체크카드 대어 : 양도 관련 유역사항
본인 명의로만 체크카드를 대어 또는 영도할 경우 전자금용거래법 제6조 제3항 2호에 정한 '일괄결제'의 대어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입니다.
※행사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를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소3%, 법정 최고금리(연20%) 이내
단, 연세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적 거래 연세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세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품상 상사법정비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일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현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카드납부 대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작정할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 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다-1353호(유효기간 : 2025.11.28까지)

전북도, 메가비전 프로젝트 74개 사업 발굴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
2036 하계올림픽 위상 강화
기반 조성 등 9개 분야 구성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 발굴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65조 2,718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를 통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에 전북의 핵심 현안을 반영하려는 전략적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주요 현안

을 해결하고, 미래를 선도할 전략과 비전을 담은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순한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예산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대응이 가능한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관련 법·제도 개선까지 고려한 입체적 추진 전략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발굴된 74개 사업은 △2036 하계올림픽 기반 조성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초격차 미래산업 선점 △금용도시 구현과 산업 인재 육성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전북 광역 SOC 확충 △생태경제 창출 동력 확보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사업들은 새만금 개발의 전환점

마련은 물론, 전북의 미래 도약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핵심 과제로 평가받는다. 전북자치도는 사업 발굴 과정에서 국정과제로서의 타당성과 상징성 모두를 확보하고자 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 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도 실국과 14개 시군에서 200여 건의 사업을 제안받아, 실무 회의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를 반복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국정 연계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완성도를 높인 최종 74개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추진되

는 가운데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도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SOC 확충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부각된 관련 사업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고도화했다. 연계 도시 간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망과 세계적 수준의 관광 콘텐츠를 포함해 국가사업으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메가비전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차기 정부 국정방향에 전북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 미래 설계도가 곧 국정과제가 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지원

김성수 도의원 대표 발의
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성수 도의원

홍보, 서훈 신청에 필요한 지원 등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도지사의 책무, 관계기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앞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찾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후손이 없거나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입증자료 발굴·수집 및 고증, 신청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발굴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앞으로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혀지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그 정신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해외인재유치 청신호

지역특화산업 뿌리산업
해외유학생 비자유건 완화
2년간 670명 유학생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해외인재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자치도는 7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유건을 설계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사업이다. 16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가한 결과, 전북을 포함한 14개 지자체가 선

정됐다. 전북은 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대학을 살릴 방안으로 유학생 비자를 선택해 비자 요건을 설계했다. 전북의 핵심전략인 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생명서비스, 청정 에너지 등 관련 전공으로 유학하려는 해외 인재들에게 비자유건을 완화한 것이다. 우선, 해외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북으로 유학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 심사기준을 1,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 10~25시간까지 가능했던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 시간을 30시간으로 확대했다. 전북에 유학은 외국인 학생들이 어려움이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

게 된다.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들이 학기중 인턴활동이 가능해져 졸업 후 전북 취업과 정착이 용이해진다. 전북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년간 670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학령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후 지역 대학들과 세부전공 및 운영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사업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와 연계함으로써 유학생 유치를 넘어 지역산업 필요인재 양성과 도내 인구증가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유학생 지원 정책들과 시너지

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지사는 "광역형비자 공모사업 선정은 전북형 출입국인민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대학의 해외유학생 유치와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전북 특화산업 발전이 상호연계되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 지난 2023년에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작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비수도권 최초로 개소하는 등 지역기반 외국인·이민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진보적 정권교체해야”

“내란세력 완전 척결
동조자 엄중 처벌”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7일 내란세력을 완전 척결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당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거리에서는 여전히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은 탄핵 이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종자들을 대상으로 관저 정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상왕정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의 몸통 중 하나로 알려진 김건희도 그대로 있어서 윤석열 파면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 모든 힘을 모아 내란세력을 완전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란참여자, 공범자, 동조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나아가 “한덕수,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명태균 특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이에 연루된 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이 토대 위에 조기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당은 “국민의힘은 내란의 본산으로 윤석열은 아직도 국회의 1호 당원이며 국회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양립불가합하고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해체 시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며 내란 진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험정당 해산 청구를 통해 국힘을 실제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시민 항쟁은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심에 법과 제도 개혁의 핵심은 개헌이다”며 “지난 12월 3일 이후 4월 4일까지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사회 대개혁 요구의 총체 또한 전면적 개헌”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김희수 도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통과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희수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초(超)다자녀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

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야 한다)을 초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출산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김동구 도의원, 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격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에서 진행된 전북자치도 품질점검단 활동 현장 방문에 격려했다.

설계, 구조, 시공, 기계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시행규칙 및 도 조례에 따라 입주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군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점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임주민과 군산시의 요청을 진행한 이번 품질점검은 ㈜포스코이엔시가 시공하고 있는 군산 더샵 프리미엄 아파트(704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재근 기자

30 Km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운전자 수칙

스쿨존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기

안전거리 준수하기

스쿨존에 주.정차 하지않기

전북자치도, 금융 디지털 생태계 집적화

국민연금공단, '21년 센터 구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모색 131중·55억 건 데이터 축적... 창업·정책연구 실효성 입증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금융 빅데이터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센터 운영 주요 현안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빅데이터 센터 운영의 그간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다양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참여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2021년부터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에 '금융 빅데이터 센터'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1중 55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가입자 데이터 등 공공 빅데이터가 집적되어 있어, 정책 수립, 벤처창업, 지역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해당 데

이터는 누구나 센터 홈페이지(data.nps.or.kr/)를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전북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발과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입자 유형 분석 등 지역 밀착형 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또 지난해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스타트업 '토모모우'는 외국인 간편인증 아이টে를 발굴해 지역 금융기관과 사업을 연계, 실질적 창업 성과를 이뤘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금융·공공기관 의 미개방 데이터 집적화 △일반 도민 대상 데이터 역량 교육 확대 △도내 대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금융 빅데이터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센터 운영 주요 현안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전북자치도>

학(원) 관련 학과와 실습 연계 등을 추진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호남권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카카오프 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등 민간·공공 협업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기반 연구와 창업 성과 창출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전북 최초 'AI 프리즘 CT' 도입

기존 比 적은 방사선량
초고해상도 영상 구현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AI 탑재된 최고사양 프리즘 CT를 도입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도 도입된 프리즘 CT는 기존 CT보다 적은 방사선량으로도 고해상도의 선명한 영상을 제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진단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캐논 메디칼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초고속 회전 기능과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디텍터가 적용돼 심장이나 뇌혈관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도 빠르고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부정맥 환자, 인공관절이나 임플란트가 있는 환자 등 기존 CT에서 선명한 영상 확보가 어려웠던 검사에 까다로웠던 환자들에게도 판독 차이를 줄여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임상적 장점 덕분에 응급 환자나 고위험 환자의 검사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치료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프리즘 CT 도입은 전북 지역 종합병원 중 최초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주 예수병원의 영상진단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AI 기반 프리즘 CT 도입으로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최첨단 의료 장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전북 지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LX공사, 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 임명

현장부터 본사까지 두루 경험
지적기술 조직관리 능력 겸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는 8일자로 신임 기획혁신본부장에 고재학을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 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은 1995년 LX공사(前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노사협력처장, 자산관리부장, 경영지원실장 등 본사의 주요 보직을 거쳐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 주요 포상경력으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적기술 혁신과 현장 근로환경 개선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표창을 수여 받은 바 있다. 신임 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의 임기는 삼임이사로서 2027년 4월까지다. /김영태 기자



고재학 본부장

전북환경청, 공공하수·폐수처리 20개소 맞춤형 기술지원

소규모 노후화시설 우선
11월까지 민관 합동 진단

전북지방환경청은 관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전북지역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

다고 7일 밝혔다. 기술지원 대상은 최근 1년 간 방류수 수질기준 2회 이상 초과 시설, 저유량·저농도 유입 시설, 기술진단 비대상인 준공된지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화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기술지원을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반북 초과 및 저유량·저농도 유입의 원인을 분석하여 적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노후화 시설의 문제점을 진

단하여 개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원 체계는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전문가 그룹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지원은 정책, 운영·관리, 기술진단 총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최근 정책방향과 법적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농진청, 과수 현장실증연구 3과제 추진...산업 경쟁력 제고

수분·온도·일조량 제어 과제

농촌진흥청(청장 귀재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과수 분야 현장실증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8~9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에서 농가와 산업체, 지역 담당자가 참여하는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 최근 들어 과수 생육기 저온으로 과일 나무 새순이 얼어 죽거나, 고온·가뭄에 의한 당도 저하, 껍질 색이 잘 들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과수 생육 초기인 4월 하순 기온이 영하 2~4도(C)까지 떨어졌고, 성숙기인 7~8월에는 열대야가 22일 연속 발생했다. 또 8월 강우량은 평년 대비 7.8~46.8%에 그쳤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올해 7개 지역에서 과수 분야 현장실증연구 3과제를 추진해 기술의 빠른 현장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포도 무가온 하우스 온도 제어시스템'은 이상저온에 의한 새순 고사, 꽃 피는 시기 꽃떨이 현상 방지를 위해 포도 온실에 열풍 공기 순환 팬을 설치, 생육 초기(3도(C)↑)와 개화기(12도(C)↑) 온도를 관리하는 과제이다. '사과 햇빛 차단망 제어시스템'은 고온기 햇빛 데입 피해와 마른 장마기 물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온도·강우 반응형 햇빛 차단망을 설치·활용하는 과제다. 이 시스템에는 자동관수시설도 함께 적용해 누적 강우량이 7일간 20mm 이하면 991ml(300평)당 20톤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당도와 착색을 향상할 수 있다. 포도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캠벨 열리' 껍질 색이 까맣게 들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다. 착색 불량은 고온과 햇빛 부족뿐 아니라, 가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 시스템은 5일 간격으로 991ml(300평)당 20톤의 물을 공급

다고 7일 밝혔다. 기술지원 대상은 최근 1년 간 방류수 수질기준 2회 이상 초과 시설, 저유량·저농도 유입 시설, 기술진단 비대상인 준공된지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화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기술지원을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반북 초과 및 저유량·저농도 유입의 원인을 분석하여 적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노후화 시설의 문제점을 진



농촌진흥청은 올해 7개 지역에서 과수분야 현장실증연구 3과제를 추진해 기술의 빠른 현장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사진=농촌진흥청>

하고, 성숙기에는 물 15톤씩을 3일 간격으로 줄여 공급할 수 있다. 특히 '포도 무가온 하우스 온도 제어 시스템'과 '포도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7일 금융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사진=농협>

NH농협은행 전북, '금융사고 제로화' 의지 다짐

금융사고 예방 결의대회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7일 내부통제 강화와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김성훈 본부장 이하 전 영업점 사무소장과 전북본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및 위원회 10개팀 서약서 작성 등 내부통제 강화와 기본원칙 준수를 통한 '금융사고 제로화' 실현 의지를 다졌다. 이어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총괄하고 있는 준법감시부 소속 이성구 국장이 '영업점 금융사고 예방 및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전북 관내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사고 제로를 실현하는 전북농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안양원협에 재해구호기금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과 전북특별자치도조합운영협의회 위원장(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농협중앙회 수석이사)은 지난 4일 안양소재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해 폭설로 인한 공판장 등 피해

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북특별자치도 92개 농협이 함께 조성한 '재해구호기금'으로 각종 재해 등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실의에 빠진 안양원협 임직원과 농가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전달됐다. 아울러, 부안농협(김원철 조합장)에서도 별도의 성금을 모아 '협동조합간 협동, 상생의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 이정환 전북본부장은 "대한민국 모든 농민의 애환을 함께 하는 것이 농협이 할 일이며 환난상휼의 마음에 지역적 한계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벼농사, 철저한 종자 소독으로 병 예방·발아율 유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청명(淸明)이 지났다. 본격적인 벼농사를 앞두고 파종 전 종자 준비와 모 기르기(육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농촌진흥청(청장 귀재한)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올바른 종자 소독 방법과 모 기르기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벼 키다리병이 발생한 재배지에서 수확한 종자를 파종할 경우, 모를 기를 때부터 병이 발생해 수확까지 이어진다. 병에 걸린 벼는 웃자라고 새끼치기(분얼)가 적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말라 죽는다. 최근 대규모 공동 육묘장이 늘고 모 기르는 기간 단축, 벼씨 소독 기술교육과 홍보 등으로 모판에서의 병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일단 병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쉽게 퍼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벼묘선충은 벼씨 표면이나 왕겨 내부에서 겨울을 나고, 파종한 벼씨가 발아하면 윗잎으로 이동해 잎과 벼씨를 전염시킨다. 감염된 벼는 잎의 끝부분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구부러지고, 난알에 검은 점이 생기며 가벼워져 품질이 떨어진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벼 재배지에서 벼묘선충 피해를 조사한 결과, 매년 10%가 넘는 재배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벼 키다리병과 벼묘선충 등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벼씨를 사용하고 올바른 종자 소독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성공적인 벼농사를 위해서는 충실한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벼가 여

물 때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에 덜 여론 알(미숙립)이 있거나 수발아 비율이 증가하는 등 종자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급종이 아닌 종자는 까락 제거 후 소금물가리기(염수선 또는 수선)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60도(C) 물 300리터(L)당 벼씨 30kg을 10분 담갔다가 꺼내 찬물에 바로 식힌다. 비율(물 10:벼씨 1), 온도 등 조건을 제대로 지킨다면 벼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0% 이상 볼 수 있다. 고온에 민감한 품종은 이 조건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가루쌀 품종 '바로미2'도 발아율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온탕 소독을 지양한다. 특히, 지난해 벼가 여름 때 고온으로 발아가 잘 어물지 않았거나 수발아가 발생한 벼씨를 사용하면 발아율

이 낮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온탕 소독을 마친 벼씨는 적용 약제별 로 희석 배수에 맞게 희석한 후 약액 20리터(L)당 벼씨 10kg을 30도(C)로 맞춰 48시간 담가둔다. 해마다 같은 약제를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2~3년 주기로 약제를 바꾸는 것이 좋다. 자세한 등록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h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종 전에는 벼씨를 30~32도(C)에서 1~2일 담가 1~2mm 썩을 뒀다. 썩어 늦게 툔 때는 벼씨 담그는 시간을 늘려 균일한 발아를 유도한다. 파종할 때는 적정 파종량을 지키고 모 기르기 중에는 상시로 물에 담그지 않도록 해 웃자람을 방지하고 균일한 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주의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권 대학, 글로벌 최종 지정 앞두고 ‘분주’

전주대·호원대, 스타센터 중심 공동사업 운영 예정
우석대, 수소 전문기업·연구기관 ‘맞손’ 지산학연 구축

최근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지정계획 발표와 동시에 추가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대학들도 공모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대학 30은 교육부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지정된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 혁신을 우선 적용하는 정책이다.
지정계획 발표에 추가 지정을 받으려

는 대학들은 글로벌 역량 강화 부문과 대학 내 전반적인 혁신 도모책 등을 모색하고 있다.
전주대와 호원대는 전주대스타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해 최종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대 관계자는 “선정 과정이 단축돼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학끼리 경쟁이 치열하다”며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대학 간 연합을 통해 경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석대도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우석대 관계자는 “지역 내 수소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손잡고 차별화된 지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이라며 “올해 글로벌대학에 선정돼 대학이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군산대학교와 비전대, 군장대도 글로벌대학30 최종 지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5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선정 과정 단축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을 반영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오는 9월까지 10개 대학 이내로 글로벌 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일정은 내달까지 글로벌대학 지정과 관련된 예비지정을 마친 뒤 8월부터 본 지정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9월 중으로 최종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대학 30에 지정된 도내 대학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 원광보건대 등 3개 대학이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학비를 올리는 등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대학이란 정부 지원마저 못 받을 경우 폐교도 순식간일 것이다. 이번 글로벌대학 선정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정을 위해 모든 대학들이 특단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대선 국면 학사일정 차질 없도록”

서 교육감, 원활한 추진 당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7일 “대선 국면으로 여러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학사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라회의에서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됐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어 “6월 고등학교 대학수학능력

시험 모의평가 일정뿐만 아니라 학사 일정,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주요 업무 일정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교육 관련 공약도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전북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대학평의회 “총장 직무대리 월권 행사” 지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거부
학사구조개편 일방적 추진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직위 해제되면서 직무대리를 맡게 된 엄기욱 교무처장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대 대학평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엄기욱 직무대리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체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해 대학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장호 전 총장은 ‘시급성’과 ‘평가 대응’을 명분 삼아 학사구조개편을 반복했지만 책임 있는 자기 평가도 없이 이뤄진 무책임한 개편 시도는, 대학 학사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지난 3년간 혼란 속

에서도 묵묵히 협조해 온 구성원들의 헌신을 철저히 짓밟는 몰염치하고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 평의회는 직무대리에게 △의사결정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 즉각 구성 △학사구조개편을 중단하고, 즉시 구성원 논의의 장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대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청은 직무대리가 총장 업무를 수행 중이고, 보직자 공석이 없어 구성이 불가하다”며 “학사구조

개편은 매년 이 시기에 있었고 아직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장호 전 총장은 취임 이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교수평의회와 조교노조,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025 교육가족 공모전’

‘10대 핵심과제’ 주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교육가족 공모전을 ‘전북교육 2025년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교육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번 공모전 분야는 동시(초등학생)와 사진, 솜품 영상, 만화(웹툰) 등이다.
분야별로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아침 10분 독서, 나만의 학습비법 △AI와 함께하는 우리 교실, 재미있는 수업 이야기 △학교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 에너지 절약 노력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담아내면 된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 교직원(교육공무직 포함)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오후 5시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시의 경우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학생을 대신해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솜품 영상은 개인 및 단체(5인 이하)가 가능하다.
사진은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과 솜품 영상 분야에는 교직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만화(웹툰)는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분야별 복수 응모가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분야별로 대상 4편, 최우수상 10편, 우수상 19편, 장려상 39편 등 총 7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6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운영

학생 건강분석후방향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인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 수탁기관(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이 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건강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건강취약 학생을 위한 지원 프

로그램이 한층 강화된다.
센터는 당뇨 질환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교사와 담당 교사가 전문의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문-보건교사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건강 상담도 쉬워진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전북교육청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누리집 내 학생건강상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체형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 연수도 운영한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향, 낭만주의 거장들의 선율 미리 만나다

전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성기선)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축제인 ‘2025 교향악축제’에서 연주할 곡을 전주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이기로 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7회 정기연주회-2025 교향악축제 프리뷰’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오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2025 교향악축제’에서 연주할 프로그램을 사전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로,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인 글라주노프, 쇼팽, 브루크너의 주요 작품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공연 입장권은 일반 1만 원(1층), 7000원(2층)이며, 학생 및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예매는 나무결쳐를 통해 가능하다.

/정재근 기자

전북대 부상돈 교수, 한국유전체물성학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부상돈 교수(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사진)가 한국유전체물성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2년이다.
한국유전체물성학회는 1990년대 초반 유전체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동호인 모임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왔으며, 유전체

와 관련 산화물 분야의 연구자들의 학문 연구 소통의 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2007년에 출범했다.
현재 유전체 연합 심포지움 그리고 한일강유전체 심포지움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들을 개최하고 있다.
부상돈 신임 회장은 “한국유전체물성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함께

한꺼번에 같이 ,
또는 서로 더불어 ,

Ddum

전북타임스신문

전북도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JBT



사회적기업 판매장 상생샵 익산시 '미지(MIJ)'로 새단장

익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상생샵이 '미지(MIJ)'로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미지(MIJ)는 '메이드 인 전북 익산(Made In Jeonbuk Iksan)'의 약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생과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았다. 중앙동 문화예술의거리(중앙로 12-23)에 위치한 매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롯해 익산 관련 상품 등 5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실내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과 소통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

이번 미지(MIJ) 개장을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지역 관광 캐리터 '마뎡' 마우스패드를 증정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과속경보시스템 추가 설치

정읍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앞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

시는 올해 수성초, 칠보초, 태인초, 입암초, 대흥초 등 5개교에 총 10대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한 뒤, 운전자에게 현재 속도를 표시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장치다.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 해까지 정읍동초교 등 8개소에 총 20대를 설치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과 사고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어선 'SOS 조난버튼 누르기' 군산해경, 7일부터 캠페인

군산해양경찰서는 신속한 해상사고 대응을 목표로 7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SOS 조난버튼 누르기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선법에 따라 모든 어선(무동력, 삼강판이 없는 2t미만 어선 등 일부 제외)은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선박에 설치하고 출항 시작동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장치는 자동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며 사고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SOS 조난신고'버튼을 탑재하고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해경 상황실, 경비함정, 각 관할 파출소로 실시간 선박의 위치와 채원, 승선원 정보 등이 바로 전달된다.

하지만 실제 사고발생 시 SOS 버튼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바로 떠오르지도 않을뿐더러 일부 어민들은 그 기능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군산해경은 이 때문에 올 연말까지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가 설치된 1,348척의 어선을 돌며 SOS 조난신고 버튼 위치와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선장과 항해사 등에게 사고 대비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민생안정 추경 착수

중기·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경제 대응 대책반 가동

익산시가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안정 대책반'을 발 빠르게 가동한다.

익산시는 7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복지과 안전, 경제 등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민생 안정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는 △민생안정기획반 △지역경제반 △복지지원반 등 총 7개 반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주요 민생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복지취약계층·농업인 등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펼친다.

또한 시는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고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추진해 부서별 지원책을 강화



정현을 시장은 큰 화재가 발생한 석암동의 특장차 부품 공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폈다
<사진=익산시>

할 계획이다.

이날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둔 추경 편성 방침도 확정됐다. 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소비비 진작과 내수 확대 사업 등 바로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핀셋 편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약 18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 업체 중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시는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운영한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회의 직후 직접

현장 행정에 나서기도 했다. 정 시장은 전날 큰 화재가 발생한 석암동의 특장차 부품 공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폈다. 이어 남십 의류 등을 제조하는 향도 중소기업 ㈜미첼을 찾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정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상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고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인들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으며, 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민생안정 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민생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 체감형 생활 밀착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저소득 계층 임차료·주거수선 지원

총 176억 원 예산 투입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군산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한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며, 주거 형태에 따라 임대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

는 사람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주거 복지제도이다.

시는 15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1인 가구 19만 1,000원 △2인 가구 21만 5,000원 △3인 가구 25만 6,000원 △4인 가구 29만 7,000원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은 23억 7,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시책일몰제'로 예산 낭비 막는다

"효과 미미한 사업 정리"

정읍시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시책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유용한 시책은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시장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 중인 예산 또는 비예산 시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폐지하는 제

도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시 전 부서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시책과 사업, 행사 등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대상을 발굴할 방침이다. 일몰 발굴 대상 사업으로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시민 만족도가 낮고 불만을 초래한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자체 검토와 함께 '시책일몰심

의위원회'를 통해 일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확정된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정비와 예산 삭감 등을 거쳐 종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로 인해 확보되는 예산과 인력은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해 행정의 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정리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중심 행정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숙련 외국인 정착 돕는 익산시...비자 전환 설명회

숙련인력 비자·자격요건 완화

익산시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한다.

익산시는 7일 ECO융합섬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처음으로 개최하며 발빠른 홍보에 나섰다.

이날 지역 제조업체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채용 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비자 전환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현장 접수, 상담 등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인구 감소·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보다 자격 및 추천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지역 기업에 재직 중인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 인력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환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22일까

지로 기획예산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기업은 경제통상진흥원 담당자 전자우편(hj97@jbba.kr, bh91@jbb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비자 전환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승급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 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 후 익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내장산국립공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1호 선정

내장산국립공원(소장 한경동)은 지난달 31일 전북권 최초로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은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내장산국립공원

은 환경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교육사업 참여 자격과 컨설팅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재양 탐방시설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환경교육기관 1호로 지정된 만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안부살림 우편서비스'로 안전망 구축

월 2회 생필품 전달·안부 확인

익산시가 우체국, 지역사회와 손잡고 고립된 이웃을 위한 돌봄 복지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익산우체국,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종철 익산우체국장, 성시종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안부살림 우편서비스'는 행정안전

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시는 집배원들을 '우리마을행복지킴이(명예사회복지공무원)'로 위촉한다. 익산우체국 집배원들은 월 2회 대상 가구를 방문해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시는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사업이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대상자 발굴과 위기 징후 감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소 9만 7000여 마리 림피스킨 백신 접종

정읍시가 4개월령 이상 소 9만 7165마리에 대한 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을 본격 추진한다. 파리나 모기 등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인 만큼, 농장 주변 해충 증가가 우려되는 시기 전인 이달 말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접종은 1674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림피스킨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우 농가에서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 131개 농가에서 확산된 바 있다. 감염 시 소 피부에 결절과 흑이 생기고 식욕이 감퇴되며, 특히 젖소는 유량이 급격히 줄어드

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림피스킨은 연 1회 백신 접종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구제역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지만 근육 주사인 구제역 백신과 달리 림피스킨 백신은 반드시 피하에 주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각 읍면동을 통해 백신을 개별 농가에 배부하고, 기한 내 접종이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의 8명을 투입해 오는 14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가축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도 함께 지원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새만금마라톤대회 1만 2천 명 참가 '성료'

지난 6일 월명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2025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가 성황을 이루며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풀코스(국제남/ 국내 남·여)·마스터즈 풀코스, 하프마라톤(42.195km)·10km·5km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엘리트 풀코스 국제 남자 부문에서는 이머 타테레 데미스(에티오피아)가 대회신기록인 2시간 09분 03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남자 부문은 박민호(코오롱)가 2시간 15분 56초, 국내 여자 부문은 최경선(예천시청) 선수가 2시간 34분 21초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최경선 선수 역시 2023년 이수민 선수가 기록한 2시간 34분 59초보다 38초 앞선 2시간 34분 21초로 국내 여자

부문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1위를 차지한 박민호 선수는 "대구 마라톤 이후 잔부상이 있었지만 그 영향인지 이번 경기 막판에 골반통이 생겨 스피드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달린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장 주변에서 푸짐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존이 운영돼 경기장을 찾은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도 이번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과 마라톤 코스의 안전 점검은 물론,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군산시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 군산소방서와 협력하여 20대의 응급차량을 준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디지털 홍보 롤모델 부상

전북 최초 숏폼 100만부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1만명 돌파

김제시(시장 정성주)의 디지털 소문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김제시 인스타그램(@gimje_
official)을 중심으로 제작한 숏폼 콘텐츠
들이 잇따라 주목을 받으며, 전국 지자
체 홍보 콘텐츠 중에서도 새로운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콘텐츠는 죽산주막, 아
리랑문학마을, 메타세콰이어길, 구일본
인농장사무소 등 죽산 일대를 감각적으
로 소개한 인스타그램 릴스다. 이 콘텐
츠는 현실 남매의 유쾌한 대화와 장원영
맘을 접목시킨 유투 있는 연출로 화제
가 됐으며, 본문 캡션을 통해 장소 설명

을 상세히 덧붙여 실용성과 재미를 동시
에 담아냈다. 이 릴스는 지난 2월 8일 업
로드해 53일만에 총 100만 조회 수를 기
록하며 전국적인 확산력을 입증했고, 이는
전북 지자체 최초로 릴스 단일 콘텐
츠 100만 뷰를 달성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김제시의 이름을 활용한 '제
시' 관련 밈 콘텐츠 또한 주목을 받았다.
이 유머형 숏폼 콘텐츠는 68만 건 이상
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김제시 SNS 전
반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이러한 흥행
을 바탕으로 주요 채널의 구독자 수 역
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 구
독자 수는 각각 1만 명을 돌파했으며,
김제시 블로그 검색 최적화 지수도 꾸
준히 상승하며 콘텐츠 노출력이 향상
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도 정보형·감
성형 콘텐츠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전
라익 효과를 거두며 1만 팔로워 달성을

앞두고 있다. 플랫폼별 특성에 맞춰 제
넵을 세분화하고, 콘텐츠 유형을 정교
하게 나누는 전략을 통해 SNS 전반의
도달률과 반응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
리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메타의 텍스트형 SNS
'스레드(Threads)'도 전국 지자체 중 선
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시의 열시
로드라는 감성 밤편지 형식의 콘텐츠
는 김제시의 이름과 정체성을 살리며,
현재 1,000명에 가까운 고정 구독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SNS 콘
텐츠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시민들과
의 유쾌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목표"
라며 "앞으로도 예능형 콘텐츠부터 감
성 에세이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김제시
의 매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광역 교통망 구축 적극 대응”

주요 간부회의 개최 “마실축제 장애인 편의 등 축제 환경 조성·지원”

권익현 부안군수가 대통령 탄핵과 조
기 대선 정국 속에서 행정 안정성과 업
무 지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7일 열린 주요 간부의
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앞으로 이어지
는 대선 국면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
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업무를 차질 없
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 안정, 복지 지원체제 점검
을 비롯해 국가예산 확보 및 대외협력
등 주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
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정
치적 변수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간 치러지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기
간 중 인파 밀집, 임시 구조물 설치, 동
선 제한 등으로 인해 장애인 등 보행약
자의 이동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인도·횡단보도
이동, 경사로, 도로 턱 등에서 불편이
우려되므로 관련 부서는 이동 장애 요
소가 없는지 사전 점검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해 달
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최근 대광
법 개정으로 전주시와 인근 지역까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
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
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
주권 광역 교통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
할 예정으로 관련 부서는 부안~전주간



권익현 부안군수

광역 교통망 확충 방안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동향 파악 등 적극 대
응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벚꽃축제 ‘기다렸나, 봄’ 성료

전야제·개막식 등 주민 추측 끝없는 야간 경관 조명 인기 체험·먹거리 가격 큰 호응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
3회 고창 벚꽃축제 ‘기다렸나, 봄’이 지
난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 이번 축제는 지난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유명 초대가수와 함께한 개
막식,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군민·
청소년 페스티벌이 연이어 펼쳐지며
축제의 흥겨움을 더했다.
특히, 이번 벚꽃축제의 하이라이트였
던 야간 경관 조명은 끝없이 펼쳐진 벚
꽃터널 아래 화려한 일루미네이션과
다양한 포토존으로 구성돼, 늦은 밤까
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행사장 곳곳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3회 고창 벚꽃축제 ‘기다렸나, 봄’이 지난 6일 성황
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고창군>

마련된 쉼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축제 중 많은 관
객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예정된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등 주요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산업구조 다변화 대응 방안 논의

산학연 연계 기업간담회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등 기업애로사항 청취 반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산학연 연계
기업간담회를 통해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는 7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
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요 투자기업
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산
학연 연계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두산전자, 석경에
이티(주), ㈜호룡 등 최근 투자협약 7
개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한국폴리
텍대학 전북캠퍼스, 덕암정보고등학교,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산학융합
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내외 투자 동향 공유, 기관
별 주요 사업 소개, 기업애로 및 건의사
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젊은층 인구 유출 방지와 우수
인력 확보,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한 효
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또,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지역 내 고
등학교와 대학에서 양성해 지역 기업
에 채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 우수 인력
장기근속 방안, 지역인재 채용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호근 투자유치과장은 “어려운 경
제 여건에서도 김제시에 투자하고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
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김제시
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2천여명 선수·학부모 찾아 8일부터 본선 경쟁 치열

고창군 고창컨트리클럽에서 지
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제3회
고창고인돌배 아마추어 골프선수
권대회'가 열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골
프협회와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
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후
원한다.
지난 1일부터 4일에는 중·고·대
학교 학생선수 1천명이 예선전을
치렀고, 8일부터 2백명이 본선에
참가, 1백명이 최종본선에 올라간
다. 최종우승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국가대표상비군 선발 포인트가 주
어진다.
대회가 치러지는 고창컨트리클

럽은 탁 트인 코스 경관과 해수를
끌어들인 자연적인 워터 해저드, 송
림을 타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닷바
람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운
동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건
기 좋은 국내 베스트 골프장'이다.
또한, 장어, 바지락, 복분자 등 고
창의 먹거리는 대회를 맞아 고창을
찾은 2천여명의 선수 및 학부모들
에게 라운드 이후 건강식까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만족도가
높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한
국골프 유망주 발굴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앞으로도 지
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하는 대회가 되기를 희
망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전북자치도 사회조사 실시

부안군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5년 전북
자치도·부안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란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
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 810개 표본가구
의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
며 조사는 조사원이 각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교육·보건·의료, 주거·
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군 특성
항목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수
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

는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된
다.
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20명을 투입하고 사전 교육 등 준비
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응달
률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에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을 펼치고 있다.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사
회조사가 군정과 도정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방문 조사 시에 안전
수칙에 유의해 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오는 12
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농특산물, 기아타이거즈 야구팬에 눈도장

고창군이 광주 기아팬피어нс스필드
외야석에 강렬한 광고를 선보이며 야구
팬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
“맛있다! 고창 복분자 수박 멜론 고구
마 흠뻑 맛!”의 직관적이고 유쾌한 광고
문구로 야구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흠뻑이 터질 때마다 중계 화면에
등장해 전국적인 노출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
팬들 반응을 뜨겁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는 “흠뻑 맞추면 복분자 주냐”, “고

창 농산물 진짜 흠뻑맛이다”, “고창이랑
내적 친밀감 생긴다” 등 재미있는 댓글
이 쏟아지고 있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
고창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효과
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격
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고창 농특산물의 가치
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야외 활동과
농작업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
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치명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생하며 38℃ 이
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식
욕부진, 심할 경우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
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
하지 않으나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 노
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현재까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
는 것이 중요해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반드시 목욕하면서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봄
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 등 증
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아 보건소장은 “김제시는 진드
기 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해충 기피제
를 배부하고 주요 산책로에 설치된 해
충 기피제 자동분사기의 작동 여부 확
인 및 약품 보충 등 점검을 실시해 감염
병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운곡람사르습지 12일 오베이골 토요장터 개장

고창군은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의 일환
으로 오는 12일부터 11월 초까지 매주 토
요일 고인돌박물관 야외마당에서 운곡람사
르습지 오베이골 토요장터를 연다.
오베이골 토요장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생태관광지인 운곡람사르습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매년 고창군과 습지
마을 주민 협의체인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
회적협동조합이 같이 운영한다.

오베이골 토요장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과 전통 가공식품, 김
치류, 수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생산 제품
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레부터는 기존 농산물 및 지역 특
산품 판매와 더불어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서로 교환하는 ‘아나바다 장터’를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운곡람
사르습지라는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오베
이골 장터를 열고 있다. 토요장터가 단순한
판매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
어넣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
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박지훈·임주혜 변호사 초청 지평선아카데미 특강 마련

김제 지평선아카데미가 오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4월은 법률관련 특강을 준비했
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오는 10일
에는 박지훈 변호사, 24일에는 임주혜 변호
사를 초청해 강연을 꾸릴 예정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다양한 방송 출연과 칼럼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온 법조인이다. 주요 시
사 프로그램과 예능에 출연하며 법률적 관
점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설명으로 많은 이
들의 공감을 받아왔다. 또한 임주혜 변호사
는 다양한 방송 출연과 강연을 통해 생활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며, 일반 시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대학교에서 생활 법률 특강을
하며 법률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달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에서는 ‘생활 속
의 법 이야기’를 주제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소
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평선아카데미는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강연 영상이 경로당
IPTV와 사이버학습센터에 업로드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마실樂 청소년예능경연대회’ 부안군 참가자 모집

부안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
칠 수 있는 ‘마실樂 청소년예능경연대회’ 참
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
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연예
예술인협회 부안지회가 주관해 추진되며 오
는 5월 5일 오후 1시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에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대한민국 18세 이하 청소년으
로 3명 이상 15명 이하 팀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참가신
청서, 동영상파일, 음원파일을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예선은 동영상 심사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접수된 팀을 대상으로 11팀을 선발하며 본
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오는 5월 5일 부안
마실축제장 주무대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시상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1
팀 150만원, 금상(부안군수상) 1팀 100만원,
은상(부안군수상) 1팀 80만원, 동상(부안교
육지원청 교육장상) 1팀 60만원 등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지역 청소년들
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길 바란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도전해 자
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7월 입주

무주택 신혼부부 우선 입주 청년·취약층 주거안정 기대

순창군이 조성하는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오는 7월로 다가오며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주거 문제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5월 말 준공 예정인 복흥면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사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복흥면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총사업비 47억 8,900만원이 투입된 이 주택은 지상 4층, 연면적 1,327㎡ 규모의 연립주택 1동이며, 7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58㎡ 12세대와 39㎡ 8세대의 총 2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월 임대료는 58㎡는 15만 2천원, 39㎡는 10만 1천원으로 인근 시군보다 저렴하다. 특히 지역 내 임대 주택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무주택 주민들에게 최적의 주거지가 될 전망이다.



순창군은 5월 말 준공 예정인 복흥면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사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사진=순창군>

아울러 복흥면 공공주택은 면 소재지 내에 위치해 행정복지센터, 농협, 초등학교·중학교, 터미널, 보건지소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한 36대 규모의 주차장이 완비돼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한부

모가족), 청년, 고령자, 다자녀가구 및 농촌유학 가족 등이며,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공공주택팀) 또는 복흥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면 소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관문 넘었다

행안부 중투심 1차 통과 2027년 12월 준공 목표

남원시가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

지할 목적으로 사업 시행 전에 자치단체의 신규 투자 사업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남원시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곤충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곤충산업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 온실가스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식품·펫푸드·화장품·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라며,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통해 남원을 넘어 전북특색,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곤충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농식품부, ‘귀농귀촌 1번지’ 완주 방문…활성화 모색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청취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답사

2025년 농식품부 귀농귀촌 현장간담회가 전북 귀농귀촌 9년 연속 1위 완주군에서 열렸다.

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주관한 간담회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귀농현장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자치도·완주군 관련 부서 공무원, 귀농농가, 현장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청년 귀농현장인 비봉면 애플망고 농가와 고산면 딸기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현장의견을 청취한 뒤 의견을 공유하고자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심



7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간담회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귀농현장에서 진행됐다. <사진=완주군>

층 간담회를 열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은 완주군이 보유한 인프라와 자원을 적극 활용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각 지자체의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형 귀농귀촌 공모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완주군 귀농귀촌 가구는 5,675가구 8,314명으로 전북 전체 귀농귀촌 1만 7,417가구 중 약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김명곤 기자

“웅치전투는 완주 정신” 완주 역사교육 강화

교재 개발·다큐멘터리 제작
교육·문화 정책 적극 추진



완주군이 임진왜란 웅치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교육·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군은 7일 국가유산 정책의 일환으로 웅치전투와 관련된 역사 교육 환경 조성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더 많은 이들에게 선조들의 호국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전주 진격을 저지한 중요한 전투로, 조선 의병과 관군이 힘을 합쳐 싸워 승리한 대표 사례로 평가 받는다. 지난 2022년에는 국가사적 지정으로 문화유산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인받았다.

이미 군은 지난 2월, 완주군 소속 국가유산 전문인력을 활용해 완주 인제육성재단이 주관하는 ‘중국어 캠프 프로그램’의 ‘찾아가

는 역사 교육’과 연계해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웅치전투의 역사와 의미를 교육했다.

3월에 발간된 완주교육지원청의 ‘초3 지역화교재’ 개발 시 전문인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웅치전투를 비롯한 지역의 중요 역사자원들이 수록됐다.

이외에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해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이 직접 웅치전투 현장을 방문해 역사적 교훈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웅치전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웅치전투의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연이은 산불 ‘철벽’ 대응…주민 안전 지켜

순창군이 연이은 산불에도 불구하고 산불 진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다시 한번 재난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지난달 26일 회의를 중단하고 산불 진화에 나섰던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산불 발생 소식에도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 일정 중 현장에 있던 직원들과 함께 산불 현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25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 14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연이어 건조한 날씨 속에서 이어진 화재에 순창군은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이날 오후 4시 35분, 불과 2시간 만에 주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이어 1분 후인 4시 36분에는 잔불 진화까지 마무리 지었다.

이날 진화에는 292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공무원 162명, 산불예방진화대원 40명, 소방 40명, 경찰 30명 등



다각적인 협력이 이뤄졌으며, 산불임차헬기 3대, 소방차 12대, 등짐펌프 등 총 326점의 장비도 총동원됐다.

화재 원인은 예초기 작업 중 튼 불씨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약 1헥타르, 피해액은 총 5,628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순창군은 더욱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공무원 중심의 산불 전문 진화대 약 100명을 구성해 체계적인 산불 진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는 7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심 의원은 완주군은 농업인구가 1만8,62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이거나 지역사무소가 없어 농업인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임시 민원센터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운영 시간 및 처리 업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농업인들은 전주까

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타 지자체 농업인들과 비교해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완주사무소 설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농업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10일부터 ‘군민 삶의 질’ 변화 사회조사

순창군이 군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25년 순창군 사회조사’를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810개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주요 내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특성항목을 포함한 8개 분야, 6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삶의 질 만족도, 소득 수준과

만족도, 일자리와 정주의사, 주거 환경과 교통 이용 만족도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어 군민 생활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문항 수가 많아 가구 방문 시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되며, 순창군의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영남 산불 이재민에 성금 1억여 원 전달

완주군이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 등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공직자들의 성금 2,000만 원을 비롯해 총 1억여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군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성금을 마련하고,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협조를 구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발차 지원, 각 사회단체의 인력지원과 구호물품, 생필품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이재민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지난 주말 개최 예정이었던 모악산 웰니스 축제를 취소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주소정보시스템 점검 정확성 개선·생활안전 강화

순창군이 군민 안전 확보와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대대적인 주소정보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판 3,707개, 건물번호판 6,595개, 기초번호판 667개 등 총 10,969개의 주소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표기의 명확성은 물론, 시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물번호판은 순창, 쌍치, 복흥, 구림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주소 시설물이 한눈에 인식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민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조사에는 최신 모바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스마트KAIS’ 단말기가 활용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조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소정보시스템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소정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선발…식품 행정 투명성 제고

남원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식품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오는 14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을 신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남원시이고,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식품 관련학과 졸업자 등이 지원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 및 관련학과 졸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상태 점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홍보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 소비자로서 식품위생 행정에 참여하게 된다.

관심이 있는 시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남원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위생안전팀으로 본인 방문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고시 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63-620-7991)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춘향제 대비 녹지환경 정비 ‘한창’

요천변·주요 관문 환경정비

남원시는 다가오는 제95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첫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관문도로와 요천변 요천변 행사장일원에서 꽃 경관조성 및 예초·제초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춘향제 기간 동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진입로와 행사장 주변을 대상으로 이뤄

진다.

접초와 우거진 풀을 제거하는 예초·제초 작업과 함께 메리골드, 페튜니아 등 50만본의 다양한 봄꽃을 식재해 축제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남원을 대표하는 요천변 행사장에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표현한 대형 포토존과 꽃화단이 조성된다.

승사교 ~ 주촌천 하천 둔치에는 유채꽃 등 3ha의 꽃단지를 조성해 관광객



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 남원을 찾는 이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2025년 4월 8일 화요일

무주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금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로, 대상 산지에서 1년 이상 대추와 밤, 표고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자 및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이며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지급 대상 요건과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 등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은 산림청 및 무주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1588-3249에서 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신정호 과장은 “임업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장려하고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다”라며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 한해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총사업비 15억여 원을 투입해 임업직불금 지원 외에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하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표고 버섯 배지센터 등 산림소득시설 정상화로 임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백련지구 마을주민
선진지 순창군 심초 등견학

임실군 강진면 백련마을 주민들이 최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순창군 심초마을과 월곡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지난 2일 다녀왔다.

이 마을은 지난 2023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마을로 2026년까지 국비 14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마을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농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비슷한 여건의 마을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고 마을주민 간의 갈등 해결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심민 군수는 “이번 우수사례 지역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이끌어가는 백련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현장 행정 추진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5회 진안마이산배 바둑대회’
성인부 김경오·백경주 우승

전국의 바둑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제5회 진안마이산배 전국 바둑대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북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바둑 동호인 4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돼 자웅을 겨뤘다.

대회 결과 전국 2개 부분에서는 시니어 대항전에서 광주광역시A팀이, 여성 5인 단체에서는 화성특례시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전북 성인부에서는 김경오, 백경주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전북 학생부에서는 최승민, 강현서, 박연우, 이수호, 박승원·고찬영·최효영·전하은, 공도일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힘써주신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 이원득 전북특별자치도 바둑협회장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바둑대회를 통해 진안의 맛과 멋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 사업’ 결실

36개월 납부 완료 48명
적립금 720만원 목돈 마련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이 두 번째 결실을 맺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 신청자 91명 중 36개월 적금을 납부 완료한 사람은 모두 48명으로, 무주군은 7일 개인별 납입액과 이자, 군 지원금을 모두 합친 만기 축자금 720만 원(1인당)을 전달했다.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 인기폭발

이틀간 3만5천여명 방문
출렁다리 유료 관광객
1만여명 성공 개최

2025 임실방문의 해와 만나는 첫 번째 축제인 옥정호 벚꽃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군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옥정호 출렁다리 앞 광장에서 열린 2025 옥정호 벚꽃축제를 찾아온 방문객은 3만5천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벚꽃축제 방문객인 2만여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임실 옥정호와 벚꽃축제의 전국적 명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중 출렁다리를 건너 봉어섬 생태공원에 들어간 유료 입장객 수도 비 오는 5일에는 3,287명, 6일에는 6,862명으로 총 1만149명을 기록, 이틀 동안 관공에 따른 수익 또한 톡톡히 봤다.

특히 축제 첫날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5천여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둘째 날에는 화창한 날씨에 옥정호 벚꽃축제를 보기 위해 날들이 나온 인파들로 축제장 일대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옥정호 벚꽃축제는 이상기온으로 벚꽃이 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직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18세~49세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군비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의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당시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욱 과장은 “지난 2024년도 47명 지원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비롯한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자금 등의 밀친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리잡기 좋고 살아가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150여억 원의 청년 관련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지원’, ‘청년지역정착 지원’, ‘청년활력수당 지원’ 등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2025 임실방문의 해와 만나는 첫 번째 축제인 옥정호 벚꽃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사진=임실군>

피지 못한 벚꽃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옥정호와 출렁다리, 봉어섬 생태공원의 전국적인 인기가 관광객들을 위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언론홍보와 확산력이 큰 SNS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가장 우려스러웠던 교통 대책 역시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군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임실군과 경찰서, 소방서 등이 협력해 100여 명의 안전요원을 축제장에 빈틈없이 배치해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만드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축제는 끝났지만, 옥정호에 벚꽃 향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벚꽃 만개 기간에 옥정호를 찾는다면 순환도로 가득 핑크빛 벚꽃 물결이 출렁여서 발길 닿는 곳곳이 포토스팟이 돼 방문으로도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2025년 임실방문의 해 첫 번째 축제인 옥정호 벚꽃축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방문하신 모든 관광객분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선정

기금 1억원 확보
오는 12월까지 정비
도시 미관 개선 기대

무주군이 ‘2025년 공공 옥외광고물 고물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공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주관한 것으로, 무주군은 군청민원실을 비롯한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도로변, 작은목욕탕 등 20곳을 공

가와 함께 완성한 공공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하영주 팀장은 “장소 선정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모든 평가 항목을 만족시킨 결과가 무주군의 자연과 생태적 가치, 나아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5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에 군비 1억 원을 추가(총사업비 2억 원)할 방침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총괄 디자인 및 설계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청, 영남 산불 피해 주민들에 온정

전 직원 동참 1,278만원 기탁

진안군청(군수 전춘성)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7일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군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총1,278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진안군청 전 직원이 뜻을 모아 진행했다.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은 피해 주민

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 공직자들의 작은 정성이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은 전국의 재난·재해 상황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공무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탁

공직자 675명,1,020만원 전달

장수군 공직자들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장수군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20만원을 기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장수군 소속 공직자 675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공직자들의 진심 어린 정성이 산불 피해로 고

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군은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성금 기탁 외에도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연대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사진=임실군>

임실군,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임실군이 이번 달 말까지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예방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최근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소각 예찰단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위해 예찰단은 읍·면 현장 예찰에 전력을 다하고, 주민과 직접 대면해 계도 할

동과 더불어 수시 마을방송을 통해 불법소각 예방 홍보 등도 실시 중이다.

군은 불법소각 예방 홍보 및 계도 후, 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전국적인 산불 발생으로 재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군민들이 적극적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운영 ‘호응’

정보통신기술 기반 안전망
위급상황 시 119 즉시 신고
170가구 추가 지원 예정

진안군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홀몸 어르신, 어르신 2인 가구, 조손 가구와 장애인 가정에 화

재·응급 상황 감지 센서를 설치해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군은 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진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안전 취약 계층을 선정해 현재까지 1,112가구에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170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화재 감지, 응급 호출,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 신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해당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맞춤 돌봄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트레일레이스’ 2천1백명 선수 열띤 성황

‘한국의 사모니’를 꿈꾸는 전북 장수군에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5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4K-VT코스, 5K 코스, 20K코스, 38K-P코스, 38K-J코스, 70K 총 6개 코스에 약 2,100명의 선수들이 장수의 산악 지형을 누볐다.

대회 결과 △70K코스 장식만 선수, marina cugnetto 선수 △38K-J코스 김수용 선수, 김현자 선수 △38K-P코스 김영조 선수, 김하람 선수 △20K코스 이인식 선수, 신기해 선수가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기간동안 장수공설운동장 인근 주차장은 연일 만차를 기록했으며 인근 주요소는 평소 대비 20% 이상, 숙박 시설은 30% 이상 매출액 상승을 보인 것



<사진=장수군>

으로 나타났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트레일레이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장수군도 산악 레저의 성지, 한국의 사모니가 될 수 있도록 시설·안전 분야에 차별화 신경쓰겠다”고 밝

혔다.

한편 장수군은 오는 8월 제2회 장수쿨벨리 트레일레이스와 9월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우석대 한의학과 CMF, 완주 운주면서 의료봉사

지난 5일 기독교 선교단체인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CMF가 주관한 한방 진료 의료봉사가 완주군 운주면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운주교회(담임목사 소준호)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봉사에는 침 치료, 부항, 건강상담 등 다양한 한방 진료 서비스가 제공됐고, 지역 주민 80여 명이 찾았다.

운주사랑봉사단에서는 봉어뿔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베풀었다.

/원주=김명곤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올림픽 전북유치 응원캠페인

굿네이버스·자립준비 청년들 동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구) 5천여 명 임직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전북특별자치도가 핵심사업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기원 응원캠페인에 동참하고 나섰다.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은 전북자치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뿌리기업으로서 경제발전 유발효과가 큰

국제행사 올림픽 유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완주군을 비롯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진안군 등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 특산물들 기념품 500개를 특별제작한 뒤 이를 올림픽 전북유치 성공기원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응원캠페인에 동참한다 <사진=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진안 마령면, 독거노인 대상 봄맞이 이불빨래 봉사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호)는 7일, 대한적십자사 진안 마령봉사회(회장 김행순)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봄맞이 이불빨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관내 60가구의 이불과 침구류를 직접 수거 세탁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이불을 건조한 후, 각 가정에 배달까지 완료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주시 고위직공무원, 청렴 전주실현 다짐 서약

4급 이상공무원 16명 참석

전북자치도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7일 청렴전주 실천 및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없는 청렴한 전주 실현을 위한 '청렴 실천 다짐 및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청렴 다짐의 날'은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 강화를 통한 청렴한 행정을 실천할 것을 서약했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 △금주운전 근절 △사의 추구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 지시 금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이자 시민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4-H연합회, 산불 피해 이재민에 쌀 1000kg 기부

정읍시4-H연합회(회장 김선웅)가 지난 2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성면 주민들을 위해 쌀 1000kg(약 270만원 상당)을 기부하며 청년 농업인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정읍시4-H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쌀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돼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조사로경영체協, 장학금 300만 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조사로경영체협의회(회장 박재영)가 7일,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재)김제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재영 회장은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박숙영 대표, 전북대병원에 3천만 원 기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에스제이전하 박숙영 대표가 발전후원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달식은 병원 본관 3층 온고을 홀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김인희 부원장, 이상목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소는 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에스제이전하 박숙영 대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북대병원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부하게 됐다"며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깊이 감사드린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 군산시지부, 새만금 마라톤대회 지원

NH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지난 6일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 NH농협 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를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 옥구농협(조합장 전봉구) 및 회현농협(조합장 김기동) 임직원,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등 200여명이 참여해 행사진행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날 홍보부스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

도 홍보와 온라인 기부추진, 군산 관내 지역농협 답례품 전시홍보, 옥구농협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군산쌀 다담 500g짜리 1000여개를 증명하면서 통한 군산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옥구농협 '심리향' 쌀로 만든 떡볶이, 회현농협 '옥토진미' 쌀로 만든 가래떡 등을 나눠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 결산검사위원 등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진다.

지난 2~4일 진행된 장학금 기탁식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일동(대표위원 임정호, 일반위원 오세환, 정만수, 신학준, 백재욱, 정명숙, 김완철, 김재관, 김형연) 300만원,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 지병윤)이 200만원 등 각 분야에서 고창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주역들이 미래 주역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우정희 봉사단,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봉사-마을잔치 열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우정희봉사단(단장 김용안)은 지난 6일 덕진구 조촌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드림하우스 제14호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집수리 대상지는 상담을 통해 발굴된 주거 취약 가구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으로 인해 자력으로 집수리가 힘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왔었다.

이에 주거복지센터는 우정희봉사단의 집수리 자재 후원 및 재능나눔, (주)3수도 상하수도 전문기업의 자재 후원 등을 연계해 이번 집수리 봉사에 나섰다.

/김영태 기자

봄철 화재

부주의로 인한 화재 함께 실천한다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

조리중 자리비우지 않기

취침전 향초, 촛불 등 끄기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一事一言〉



뭘 바꿔야 하는지 가르쳐준 내란 윤 정권(3)

강수들
고려대 명예교수

앞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 했는데, 노동시간이 줄면 안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잔업, 철야, 특근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한 것이 복지개혁이다. 대개 우리가 월수입에서 가장 많이 써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주거비(집세), 교육비(양육), 의료비(건강), 노후(퇴직 후) 등이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월급에서 충당할 게 아니라 평소에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굳이 월급에서 빠져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 ‘한 톱’ 쏘는 데 그 무슨 큰돈이 들겠는가? 특히 주거비는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싱가포르는 85%의 국민들에게 공공주택을 99년 동안 임대한다. 사실상 자기 집을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죽으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15%의 부자들은 자가주택을 소유하되, 대신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니 청년들도 집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교육비도 지금 한국은 사교육비만도 매년 30조에 이른다. 대학 학비도 만만찮다.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을 수차례 하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공동의 책임감으로 풀면 된다.

그러면 과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낸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최근 해마다 50조 내외의 ‘부자 감세’를 하는 바람에 적자 재정이 커졌다 한다. ‘부자 감세’나 법인세 인하를 원위치로 하고, 동시에 온갖 탈세와 누세를 제대로 잡아내면 재정적자도, 국가부채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올해 예산(지출 규모)은 670조 원이 넘는다.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빼먹을 것인지 탐구하는 도둑들이 너무 많다. 앞서 말한 국민들의 주거비(집세), 교육비(양육), 의료비(건강), 노후(퇴직 후) 등 일상생활을 사회 공공성 차원으로 해결하도록 돈을 쓰면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5개년 계획’으로, 뭘 때까지 하면 된다.

농촌개혁을 위해 농민 기본소득과 유기농 농민 공무원제를 제안한다. 20%에 불과한 곡물자급률과 40% 내외인 식량자급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 식량자급은 곧 식량안보다. 이를 통해 농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도시보다 오히려 농어촌에 사는 게 삶의 질이나 행복도가 더 높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헌법 121조에 나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살려서 부채지주를 근절하고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 최근 들어 농지 보존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라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데(농사 축소를 해야 보조금을 주는 행태),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 오히려 자급률 100% 달성을

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농지를 없애기는 식은 죽 먹기지만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린다.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생산에 어려움이 닥치면 손에 돈을 들고도 굶어야 한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한편, 일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소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부자나 대기업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시세차익이나 임대료를 챙긴다. ‘불로소득’ 기반의 ‘지대 자본주의’다. 이러한 농지개혁이나 토지개혁 모두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땅과 집에 대한 투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 공개념(커먼즈)을 통해 그 수익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물론, 이런 얘기는 거시적 차원의 틀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세 부적인 내용들은 차분한 공부와 열린 토론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 달리 말해, 시민들이 각종 선거에서 투표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풀뿌리 민초들이 적극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모여 여론과 언론의 힘을 매개로 마침내 ‘양심적이고 청렴한’ 일꾼들을 통해 채택, 실행된다면, 바로 그 때 우리는 비로소 ‘살기 좋은 나라’를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법(法)’이란 단어를 써서 달리 표현해 보자. 요컨대, 지금 우리는 ‘무법천지(無法天地)’ 상태 속에 있는데, 이것

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사법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광장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 특히 야당이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다음, 정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양심과 진실이 바로 서는 ‘준법사회(遵法社會)’를 제대로 세워내야 한다. (탐욕에 중독되지 않은) 누구나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쉽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에 뒤이어 우리는 ‘야단법석(野壇法席)’ 즉, 열린 토론을 통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공부, 토론, 요구)해야 한다. 이 토론에는 당연히도 상품·화폐·자본이 만든 물신주의(fetishism)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물신주의를 극복해야 비로소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대사처럼, ‘상 차리는 사람보다 상을 다 얹을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겠다. 과연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이 방향으로 신나게 내달릴 수 있을 것인가?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될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메가비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발전 전략을 넘어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도정의 미래 비전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설계도로서 주목받고 있다. 총 65조 규모,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로드맵이자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기회 삼아 지역의 체질을 바꾸려는 대담한 기획이다.

그러나 거대한 구상일수록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보완과 실행력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프로젝트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몇 가지 핵심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 정치적 컨센서스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도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각 정당과 대선 캠프에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해당 사업이 국정 철학 및 국가 전체의 이익과 어떻게 접점을 이루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전북만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설득하는 전략적 메시지가 필요하다.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 분산 리스크 관리도 요구된다. 74개에 달하는 전략사업 모두가 동시에 추진될 수는 없다.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어떤 사업이 즉시 착수 가능하고 어떤 사업이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과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하다. 특히 올림픽 관련 SOC 확충과 관광 인프라 구축,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등은 외부 자본 유치 및 국가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핵심사업에 집중된 전략이 요구된다. 민관 협력과 전문가 집단의 상시적 참여가 추진력 확보의 열쇠다. 전북도는 이미 추진단을 구성, 사업 구상을 다듬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 설계-재원 확보-사업 시행에 이르는 전 주기적 프로세스를 관리할 전문기구와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 유도도 빠질 수 없는 과제다. 메가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행정이 주도하기보다 도민과 기업, 시민단체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인프라 개발이나 대규모 도시계획이 포함된 사업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정권 교체와 무관한 지속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정부의 장기 프로젝트는 정권 변화에 따라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이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도록 법제화,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잠재력을 지닌 기획이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얼마나 정교한 실행 전략과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갖췄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상 그 자체보다 이를 실현시킬 ‘실현력’이다. 전북도의 대담한 꿈이 진정한 미래 비전으로 꽃피우기 위해 정치권과 도민, 중앙정부 모두가 함께 뛰어야 할 때다.

문화재열전

난중잡록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필사본, 고본
-지정일 - 1984년 9월 2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우) 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완산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수지시 010-3015-4791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믿을수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김제농업, 기후변화 위기 속 틈새와 기회 찾다

발빠른 대응으로 소득 극대화

겨울철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는 이맘 때면, 농업·농촌 사회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는다.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증가해 농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로 농부들은 어느 해와 같이 한 해 농사를 위해 종자를 준비하고, 정성스레 봄갈이를 하는 등 본격적인 영농 체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휴과 함께 살아가는 농부는 이처럼 자연의 시간에 맞춰 바지런히 움직인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자연의 흐름이 예전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봄의 출현시기가 빨라지고, 겨울은 짧아지는 반면 여름은 길어지고 있어 계절의 길이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고온과 가뭄, 폭우와 같은 극한 기후가 반복되는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대자연의 변덕을 마주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기술 적용으로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실증 시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최근 그 피해가 상수로 인식될 만큼 급증하고 있는 병해충과 각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범기술 투입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정책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 기후위기 속 흔들리는 농업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기상 조건이나 자연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 특징 때문에 기후 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후가 변화하면서 기상이변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이는 곧 생산 규모 감소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먹거리 수급 불안정을 야기한다.

또한 작물의 재배 적지가 변동되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 돌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작물의 생산과 생태계 측면에도 영향을 끼쳐 전반적인 농업 시스템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불리한 환경

조건을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 농업의 대전환기, 기후위기 돌파구 모색

정부도 기후노력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농업 부문에서는 기후적응형 농축산물 재배 및 사양 기술,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 영농 기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확산을 목표로 연구 개발 성과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농업 현장에 적용해 성과를 가시화 하면서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저탄소·환경친화적 구조 전환 소득작물·품종·작부체계 발굴 AI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정부 정책 기민 대응도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 선정, 재배 및 작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수도 위상확립을 시정 방침으로 내세우고 민선 8기가 들어선 지난 3년 가까이 김제시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적합한 작부체계 및 재배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해왔다.

#저탄소 농업, 기후위기 극복의 선행장 <농업의 저탄소·환경친화적 구조 전환>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를 증가시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농축산분야 탄소 배출량을 17.2백만톤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시도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

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저탄소 재배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35ha 규모의 현장 확산을 위한 모델을 조성했다.

또한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32ha의



논에 설치한 인공 지능 기반 스마트물꼬는 논물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개폐로 노동력 절감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의 3新, 기후위기 극복의 특효 처방 <新소득작물·新품종·新작부체계 발굴>

기후변화는 작물의 재배지역, 재배작물 및 품종, 작부체계 등 과거 전통적인 농업 재배방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특히 기온은 작물의 재배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성장뿐만 아니라 개화과 결실 시기, 재배지역까지 결정하는데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작물의 재배 적지가 점점 북상하면서 주산지도 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지난 2010년대부터 김제 일부 지역에 한라봉과 같은 만감류를 보급했으며, 시는 앞으로 애플망고, 바나나, 바닐라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배면적을 25ha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밀, 커피 등과 같은 4~5개의 대체작목에 대한 현장실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과수의 경우, 이상고온에 강한 골든볼과 썸머프린스(사과), 엘로드림(복숭아), 흑보석(포도) 등 새로운 품종



을 보급하여 올해까지 총 13개소, 4ha 규모로 특화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노력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기후로 저하된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우수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통해 새로운 재배기술 데이터를 축적하고, 최적의 생육모델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스마트 농업, 거스를 수 없는 대세 <ICT 및 데이터·AI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 경영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농업 소득은 정체되고 있고,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소위 '애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농업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율조향장치, ICT 지능형 정밀 파종기 등을 시범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기상정보, 생육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ICT 스마트팜 기반을 7개소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기별 데이터를 수집해 축적하는 한편, 기상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체계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9개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가운데 간척지 관리 모델로 지정되어 주로 온실, 하우스 등 시설 중심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노지로 전환해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하거나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미래 김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